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1호 【루계 제24869호】 주제 104 (2015)년 4월 1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동렬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동렬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오금철동지, 리병철동지, 조춘룡동지, 홍영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8월 전동렬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헌신이 깃들어있는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여러가지 최첨단기계제품을 개발하는것과 함께 경비행기들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드리는 자랑찬 선물인 새로운 최첨단설비들을 개발함으로써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금 증명하였다고 하시였다.

공장로동계급이 최첨단설비들을 개발하는 과정에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경이적인 과학기술적 성과를 이룩했다고 하시면서 결과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을 도약시킬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되였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더 높은 곳으로 비약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공장에서 새 제품을 개발하면서 첨단기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로동계급은 1950년대 군자리로동계급이 발휘한 정신으로 투쟁함으로써 당에서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목표별, 단계별로 훌륭히 수행해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새 제품개발 및 생산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최첨단설비들을

개발한데 이어 계열생산에 진입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 조선로동당장건 일흔년에

을 습득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것만큼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해야 한다고, 기계제작공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뿐아니라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모든 기계제품들을 설계상요구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제품의 질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산공정을 고도로 자동화, 흐름선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기계제작공업의 본보기, 표준이 될수 있게 새로운 기술공정을 확립하는것과 함께 협동품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기계설비들의 성능과 제품의 질을 담보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시험설비들과 검측설비들을 그르히 갖추어놓으며 도장 및 인쇄공정도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공장현대화사업에서 설비현대화보다 더 중요한것은 인재육성이라고 하시면서 설계력량은 물론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조건과 생활문제를 원만히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동렬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공장에서 새로 만든 경비행기들의 시험비행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시험비행을 진행하는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의 가슴은 크나큰 긍지와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만든 경비행기들의 구조와 성능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시험비행을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경비행기들이 조국의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푸른 창공을 날으는 경비행기들을 바라보시며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이 공장에서 군용비행기뿐만아니라 여러 기종의 민간용경비행기들도 마음먹은 대로 만들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비행기인데 자신께서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좋아할 것이며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하시면서 몸소 경비행기에 오르시여 리차륙시험비행을 진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로동계급이 만든 경비행기를 라보았는데 성능이 대단히 높다고, 조종하기 편리하고 발동기소리가 아주 좋다고, 잘 만들었다고 거듭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에 경비행기를 만들데 대한

지시를 주고 견본도 보내주었는데 해당 부문과 전동렬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 련관단위의 공장, 기업소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모든 장비, 장치들이 국산화된 경비행기들을 훌륭히 만들어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동렬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며 현대

적인 기계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은 해당 부문과 전동렬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당중앙이 제시한 새로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에 몇몇이 들어설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민족의 수치이며 평화와 통일의 장애물인 미국남조선동맹은 지체없이 해체되어야 한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비망록

최근 피피데당이 미국남조선동맹을 극구 추어올리는 해괴한 논을 벌여 비난, 조소거리가 되고있다. 구세주처럼 삼기던 미국대사가 정의의 정벌을 당한데서 크게 놀란 역적대당은 집권자이자 승미, 품미, 품미분자들이 모두 떨쳐나서 《한미동맹을 대한 전대미문의 테로》니, 《한미동맹의 심장을 겨는 공격》이니 하고 고이대며 상전에게 역격계 이루어지려는가 하면 북침전쟁책동과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미친듯이 매달리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입이 닳도록 부르짖고있다.

청와대안방주인은 남조선에 기여한 미국 군부우두머리들을 만나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안보구조》이니 뭐니 하고 떠들다 못해 《한미동맹이 세계적으로 류례를 찾기 어려운 최상의 동맹》이라고 추어올리면서 폄하까지 지어주는 추태를 부리었다.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나라사이에 외교관계라는 것이 있지만 미국남조선관계와 같은 식민주의적종교판계, 예속판계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에 남부주리러울 줄 모르고 《최상의 동맹》이라고 하니 쓸 개배진 망발이 또 어디에 있었는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피피데당이 이 동맹을 맺고 나들면서 사대미국과 동족대결, 북침전쟁책동에서 더욱 광분하고있고 판계에서 미국남조선동맹의 실상과 정체를 내외에 정확히 알리고는 겨레와 국제사회가 미국과 피피데당의 침략공모결탁을 반대배격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자 하기 위해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어디를 막론하고 그리고 어떤 시설이든지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다는 것과 피피정권은 그것을 상전인 미국에 무조건 넘겨쳐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착시했다.

미국은 이 《협정》에 근거하여 수만명의 병력을 정비하는데 충분한 군수품과 함께 일제로부터 로획한 방대한 량의 무기와 미국제비행기 그리고 합선을 피피군에 넘겨주어 북침전쟁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전세를 구실로 삼아 그 해 7월 대전에서 《새한미군관대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대전협정)을 조작함으로써 작전지휘권을 비롯한 피피군에 대한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대전협정》은 미국이 리승만에게도 하여금 당시 조선침략전쟁을 직접 지휘한 살인장군 맥아더에게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다.》는 편지를 보내게 하고 맥아더가 그에 대답하여 피피군의 통수권을 《이양받는다.》라는 회답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은 서한교환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은 이 초보적인 체제도 갖추지 못한 협정 아닌 협정을 맺고 미국남조선피피군을 통째로 《유엔군》에 편입시켰으며 이른바 《유엔군사령관》이 피피군에 대한 지휘통수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게 하였다.

이 협정은 말그대로 미군에게 식민지통치하에서의 치외법권적특권을 넘겨주어 굴종현상에서 다른 나라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에 대한 형사판결권을 규정하는 《나토군대지위에 관한 런던협정》(1951년)과 《미국-일본협정》(1960년) 및 《미국-오스트랄리아협정》(1963년)과는 대비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국의 형사판결권으로부터 면제된것으로 하여 력사상 가장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이라고 알려진 《1953년 미군-에티오피아협정》과 비교해볼 때 더욱 명증적인 한자 사기적인 문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당시 남조선인민들은 《전쟁이라는 조건에 빙자하여 일방적으로 의사를 강요하여 성립시킨 것》, 《초보적인 협정조건일조와 형식적 서치하고 이반의 록, 해, 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획득하였다.》고 개탄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도발 이전에는 《과도기간 잠정경도발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의 조작으로, 조선전쟁시에는 《대전협정》의 조작으로 피피군에 대한 통수권을 철저히 장악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쓰디쓴 폐배를 당하고 정전협정에 도착까지 찍음으로써 남조선피피군에 대한 통수권을 행사할 권한과 사기적에 대한 사적에속을 강화함으로써 새 전쟁도발 책동에 광분하였다.

미국남조선 《호상방위조약》은 미국 남조선을 군사기치화하는데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게 되었고 강점기간도 무기한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미군주둔조약들과도 엄청난 차이를 가진 최악의 불평등조약, 예속조약이었다.

미국은 1954년 11월 《호상방위조약》의 보충협정으로 되는 미국남조선 《합의의사록》을 조작하여 남조선에 대한 그들의 영구강점을 재확인하였다.

미국남조선 《합의의사록》을 통해 《유엔군사령부가 《한국》방위의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한국》군은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하에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피군에 대한 통수권을 더욱 확고히 틀어쥐었다.

그러나 한편 《대전협정》에서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다.》고 했던 조항을 없애고서 작전상태가 없는 시기에 피피군에 대한 통수권을 틀어쥐고 무한정 행사할수 있게 해놓았다.

실시 미국과 피피들사이의 《동맹관계의 기초》라고 하는 미국남조선 《호상방위조약》은 남조선을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 군사기지로 선포한 이 세상 가장 굴욕적이고 예속적이며 침략적인 미국조약이었다.

남조선의 한 교수는 《〈한국〉을 주권적주권국으로 믿고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한국〉은 미합중국군대에 예속된 무주권국이다. 〈한국〉과 미국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조문인 《호상방위조약》 제4조에 의해서 《한국》의 명도, 명해, 명공은 무조건, 무제한, 무기한적으로 미합중국군대에 양도되어있다. 다시말하여 《한국》은 명도까지 미국에 장악당하고있는 식민지예속국이다.》라고 폭로하였다.

이처럼 미국남조선동맹은 그 조작경로로 보나 동맹관계를 규정한 법률적내용을 보나 불투명하며 예속적이며 굴종적인 불평등동맹으로서 상전과 주자의 범죄적인 불법결탁에 불과하다.

미국은 남조선 각계층에서 반미감정이 급격히 높아가자 피피들과 함께 《행정협정》 개정논의를 벌리는 척 하였으나 그것은 순전히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것으로서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다.

1994년 12월에 들어와 미국이 평시작전통제권을 피피들에게 넘겨주는 논을 벌였으나 그것은 인민들의 반미자주화기운을 누락하고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주의에 대한 내외의 규탄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었다.

남조선에서 군사작전과 지휘, 정조, 장비 등 모든것을 미제가 총괄하고있고 피피군에 대한 실제적통제권을 미국이 건어워졌고있는 조건에서 평시작전통제권반환은 하나의 기만극에 불과하였다.

미국은 2002년 남조선의 두 녀중 학생을 장갑차로 깔아 무참히 학살한 미제침략군을 무죄로 선고하고 본국으로 빼돌린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미국은 남조선 각계층에서 반미감정이 급격히 높아가자 피피들과 함께 《행정협정》 개정논의를 벌리는 척 하였으나 그것은 순전히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것으로서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다.

1994년 12월에 들어와 미국이 평시작전통제권을 피피들에게 넘겨주는 논을 벌였으나 그것은 인민들의 반미자주화기운을 누락하고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주의에 대한 내외의 규탄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었다.

남조선에서 군사작전과 지휘, 정조, 장비 등 모든것을 미제가 총괄하고있고 피피군에 대한 실제적통제권을 미국이 건어워졌고있는 조건에서 평시작전통제권반환은 하나의 기만극에 불과하였다.

미국은 2000년대에 6.15의 영연합에 남조선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위한 투쟁이 광범위 벌어지자 민심을 누락하기 위해 2012년 4월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는것으로 공언하고는 친미보수 《정권》을 조직한 후 피피데당을 부추겨 그 시기를 거두 연장하는 방법으로 유아야해버렸다.

한편 미군대배치, 이전이니 하는 수실행에 미국남조선 《군사협조본부》를 새로 조작하고 《연합군사령부》를 갈음한 바꾸어유지 계속 속시키려 하는가 하면 미국남조선 《연합공군사령부》를 조작하여 피피군을 미7공군사하 부대로 편입할 움직임을 꾸미고있다.

미국은 미국남조선연내내보협의 회, 《군사위원회》 등을 통해 피피들을 종속적인 동맹관계에 2중3중으로 얽어놓고 군사적지배를 강화하고있다.

미국은 1961년 국중에 배당한 《군사협조본부》 중에서 31%에 해당하는 2억 8444만달러를 남조선에 제공하였으며 비행장, 항만, 군사도, 보급기지 등 군사기지를 강화하면서 1962년에는 해외군사기지건설비의 25%를 남조선에 배정하였다.

미국은 1961년 국중에 배당한 《군사협조본부》 중에서 31%에 해당하는 2억 8444만달러를 남조선에 제공하였으며 비행장, 항만, 군사도, 보급기지 등 군사기지를 강화하면서 1962년에는 해외군사기지건설비의 25%를 남조선에 배정하였다.

미국은 1961년 국중에 배당한 《군사협조본부》 중에서 31%에 해당하는 2억 8444만달러를 남조선에 제공하였으며 비행장, 항만, 군사도, 보급기지 등 군사기지를 강화하면서 1962년에는 해외군사기지건설비의 25%를 남조선에 배정하였다.

미국은 1968년 1월 23일 저들의 무장간첩 《투에블로》 호사건을 구실로 핵항공모함전단과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조선전선해와 주변지역에 전개시키고 원상항에 대한 기회분쇄, 우리 선박의 나포, 공군기지에 대한 공습 등을 기도하면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고 미친듯이 날뛰었다.

1969년에는 《EC-121》 대형간첩비행기사건, 1976년에는 판문점사건을 도발하여 정세를 전쟁경계로 몰아갔다가 작년 1976년부터 대규모 《덤 스피리트》 북침전쟁연습을 벌려 핵전쟁의 위험을 불어왔다.

미국은 1961년 2월 8일 남조선과 체결한 미국남조선 《경제 및 기술원조협정》(《신경제원조협정》)을 《원조의 효율적리용을 보장한다.》는 구실밑에 미국이 《원조》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고 《원조물자》의 소비와 판매과정을 직접 감독제하여 피피들은 이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규정하였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를 통하여 피피들이 《원조물자》와 자금을 철저히 저들의 승인 하에 지시대로만 쓰도록 하였으며 남조선의 재정, 경제기관들과 업체들을 미국독점자본에 종속시켰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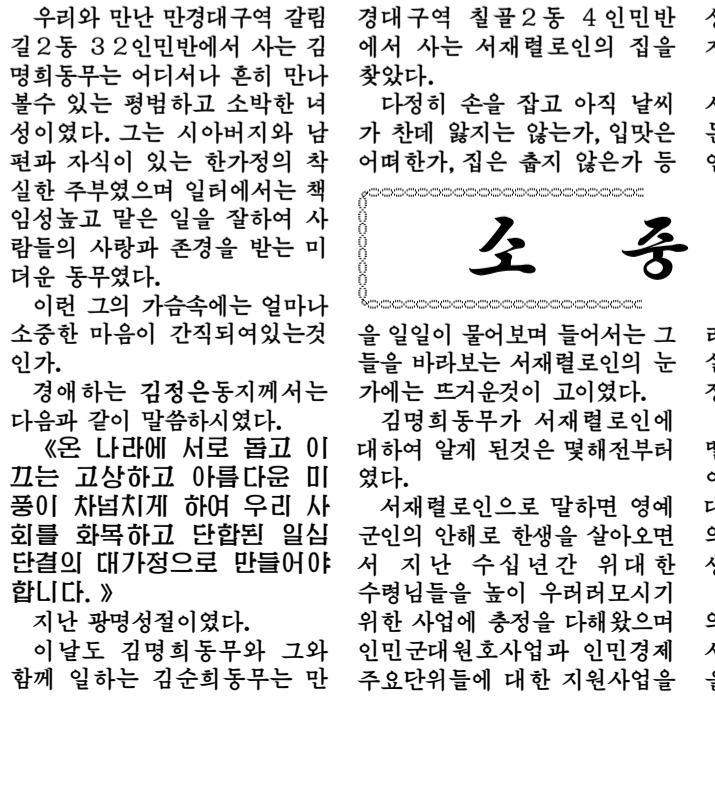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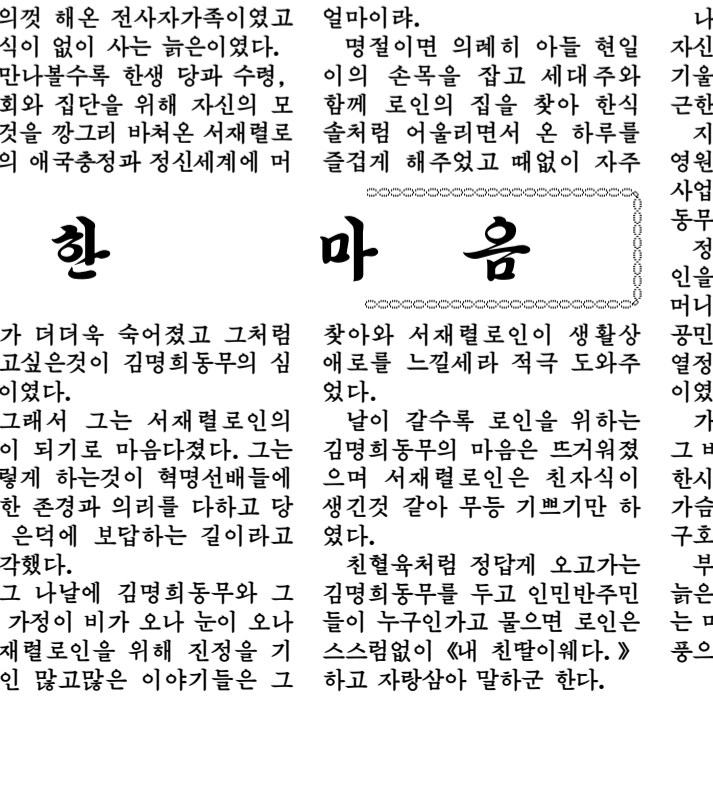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약명들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1953. 10. 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전도유망한 축구선수후비들을 많이 키워내기 위해 교수훈련지도도를 잘하고있다. -구성시청소년체육학교에서-



우리와 만난 민중대구역 갈림길 2동 3인민만에서 사는 김명희동무는 어디서나 흔히 만나 볼수 있는 평범하고 소박한 여성이었다. 그는 시아버지와 남편과 자식이 있는 한가정의 책임한 주부였으며 일터에서는 책임성높고 맡은 일을 잘하여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미더운 동무였다. 이년 그의 가슴에는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 간직되어있는 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분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광명성절이었다. 이날도 김명희동무와 그와 함께 일하는 김순희동무는 민



성있 해운 전사자가족이었고 자식이 없이 사는 늙은이었다. 만나볼수록 한생 당과 수령,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강고리 바쳐온 서재열로인의 애국충정과 정신세계에 머

나의 딸, 이것은 남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여기고 진정을 기울이는 김명희동무에 대한 친근한 불평이었다.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사업에도 충정을 다해온 김명희동무. 정녕 김명희동무가 서재열로인을 위해 온 나날은 언제나 어머니당을 따르는 길에서 승고한 공민적자격을 안고 자신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온 보람찬 나날이었다. 가정도 돌보고 직장도 하는 그 바쁜 속에서 서재열로인을 한시도 잊지 않는 김명희동무의 가슴속에는 안고 사는 하나의 구조가 있었다. 부모없는 아이들과 홀로 사는 늙은이를, 장애자들을 돌보아주는 미풍이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으로 되게 하자! -본사기자 홍성철

소 중 환 마 음

리가 더더욱 속어졌고 그처럼 살고싶은것이 김명희동무의 심정이었다. 그래서 그는 서재열로인의 딸이 되기로 마음다졌다. 그는 이렇게 하는것이 혁명선배들에 대한 존경과 의리를 다하고 당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 날에 김명희동무와 그의 가정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재열로인을 위해 진정을 기울인 많고많은 이야기들은 그

《중북》소동은 반민주적, 반인권적파쇼폭거

남조선전역에서 《중북세력박멸》이라는 간판 밑에 전대미문의 파쇼공세가 감행되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주민이 광란적인 북침전쟁영웅으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미국을 단죄규탄하며 서울한복판에서 미국대사를 정벌한 사건을 걸고 피뢰보수패당이 무자정 《중북파쇄세력》의 한 테러로 뒤 뒤 하고 히스데라적인 발자국을 일으키고있는 것은 전보민주제를 완전히 탄압할하고 장기집권을 도모를 실현하기 위한 총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의 지령에 따라 피뢰검찰, 경찰체제기러기를 미국대사정벌사건의 그 무슨 《배후를 색출》한다고 하면서 돌아치는가 하면 《세누리당》의 정치간상배들은 《중북세력》이 사회적혼란을 일으킨다느니, 《테러세력》을 뿌리뽑아야 한다느니 하고 소란을 피우며 전보민주세력에 대한 위협공갈을 일삼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에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물론 초보적인 인권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무고한 시민들까지 《중북》으로 몰려 무차별적인 탄압을 당하는 등 삼십하는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고히 유지할수 있는 비열하고 무지막한 파쇼적폭거로서 정대로 용납될수 없다. 피뢰패당이 《중북》소동에 기세를 부릴수록 모략과 폭압에 이골이 난 지층의 추악한 정체를 더욱 드러낼뿐이다.

남조선전역에서 《중북세력박멸》이라는 간판 밑에 전대미문의 파쇼공세가 감행되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주민이 광란적인 북침전쟁영웅으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미국을 단죄규탄하며 서울한복판에서 미국대사를 정벌한 사건을 걸고 피뢰보수패당이 무자정 《중북파쇄세력》의 한 테러로 뒤 뒤 하고 히스데라적인 발자국을 일으키고있는 것은 전보민주제를 완전히 탄압할하고 장기집권을 도모를 실현하기 위한 총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의 지령에 따라 피뢰검찰, 경찰체제기러기를 미국대사정벌사건의 그 무슨 《배후를 색출》한다고 하면서 돌아치는가 하면 《세누리당》의 정치간상배들은 《중북세력》이 사회적혼란을 일으킨다느니, 《테러세력》을 뿌리뽑아야 한다느니 하고 소란을 피우며 전보민주세력에 대한 위협공갈을 일삼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에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물론 초보적인 인권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무고한 시민들까지 《중북》으로 몰려 무차별적인 탄압을 당하는 등 삼십하는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고히 유지할수 있는 비열하고 무지막한 파쇼적폭거로서 정대로 용납될수 없다. 피뢰패당이 《중북》소동에 기세를 부릴수록 모략과 폭압에 이골이 난 지층의 추악한 정체를 더욱 드러낼뿐이다.

죽적멸시와 치유, 노예적굴종을 강요당하기를 바랄 사람은 없다. 지배와 예속이 있는 곳에 반항이 있기 마련이다. 오래동안 미제침략군의 군화발밑에서 참기 어려운 고통과 재난을 당해온 남조선인민들이 자주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해나서는 것은 지합된 권리를 되찾고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아보려는 자발적인 의사와 망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결코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피뢰들이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해 《중북》으로 몰고다니며 《배후조작》으로 몰아박해하였다. 《중북》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시기에 생겨났다. 그 후 보수인론들에 대대적으로 류포되던 《중북》이라는 표현은 남조선에 친미보수《정권》이 등장하면서 불순한 목적에 악용되기 시작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친미보수세력은 통합진보당의 전신이었던 이진민주로동당을 분열화해시키고 각계 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파괴할 목적으로 부러워 일심회《간첩단》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해내고 이 당을 그 《배후조작》으로 몰아박해하였다. 《중북》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시기에 생겨났다. 그 후 보수인론들에 대대적으로 류포되던 《중북》이라는 표현은 남조선에 친미보수《정권》이 등장하면서 불순한 목적에 악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역사앞에 정직하라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때로부터 70년이 되어온다. 사람들은 인류에게 미증유의 재난을 들쳐주고 인류문명을 흑암하게 파괴유린한 세계대전사를 돌이켜보며 다시는 이러한 참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있다. 그렇수록 국제사회는 일본에 날카로운 경계의 눈초리를 돌리고있다. 그것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과거와 현재가 너무나도 어지럽고 매일은 더욱 암담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침략전쟁으로 수백수천만의 아시아인들을 살육하는 만고대죄를 저지르고도 그 죄악을 력사의 흑암속에 묻어버리며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쓰고있다. 최근에도 일본정권자는 침략에 대한 정과 관련하여 《왜국에서도 또 국제적으로 정해졌기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언을 한 것으로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일본은 위험한 정치적, 군사적체제를 가진 아시아의 침략원흉으로 등장하고있다. 일본이 과거침략사를 한사코 부정하며 군국주의사상을 류포시키는 주되는 목적은 제 조상들이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 데 있다. 일본반동세력들이 침략과 범죄의 역사를 부정하는 다른 하나의 목적은 저들이 저지른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국가적배상을 회피하려는 데 있다.

단 평

남조선에서 사회의 자주화와 정의, 민주주의구현을 위해 각계각층 인민들이 벌이는 투쟁들은 친미보수세력이 임버릇처럼 불어대는 《중북》나팔과 아무런 인연도 없다.

누가 범 죄를 조장하는가

최근 남조선의 한 잡지에 일명 미군유지비로 불리는 《양위비분담금》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자료가 실렸다. 피뢰당국으로부터 별안간 《양위비분담금》을 다루는 미군은행의 회계원으로 근무하는 한 남조선 여성이 불과 몇해동안에 무려 6억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개인의 썸짓돈도 아닌 거액의 은행자금이 없어진것을 은행측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걸 수탁에 없다.

반역적 망동으로 당하는 비난과 조롱

비록한 것은 곳마다에서 보수 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과 반공화국대결정적, 강권과 부정부패행위를 규탄하는 배라들이 련속적으로 뿌려졌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반《정부》배라살포투쟁이 거기에 서뿐 아니라 이제는 싸이버공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싸이버공간에서 집단적으로 뿌려지는 형태가 훨씬 더 파괴력 있다.》라고 하였다. 악에 받친 경찰당국이 감시활동의 자료를 확인한다. 《법위반》 혐의를 조사한다 하고 분주함을 피우고있던 남조선으로 분노한 민심을 억누르겠다는 것이 아닐까 부질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핵침략전쟁책동을 규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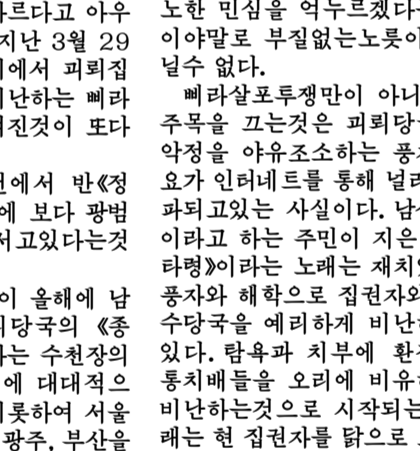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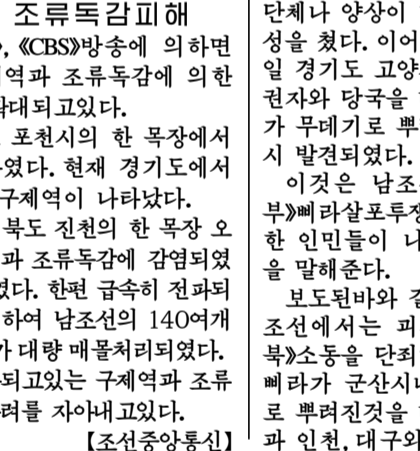
【도쿄 3월 31일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일본 간포지방)의 제일본조선청년동맹과 제일본조선학생동맹으로 구성된 항의단인 《영양정령》, 《북제도진북》을 노린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의 핵침략전쟁책동은 규탄한다. 《영양정령》은 남조선에서 3월 30일 일본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피뢰대사관앞에서 항의투쟁을 벌였다. 항의단은 먼저 《미국과 남조선의 핵침략전쟁책동을 견결히 단죄규탄한다!》, 《미국은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을 그만두고 북남관계개선에 성실하게 노력하라!》,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 리행을 나서라!》, 《자주, 민주, 통일》을 외쳤다. 《자주, 민주, 통일》을 외쳤다.

민심의 배척을 받는 특등거짓말쟁이

이탈리아작가 플로디는 잘 몰라도 그가 창작한 동화 《베노키오》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작품에서 인형 베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축축 늘어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었다. 그런데 백수십년전에 동화책을 등장시켰던 베노키오가 오늘 남조선에서 현 집권자의 거짓말정체를 아우조소하는 주인공으로 출현하였다.

미국의 핵침략전쟁책동을 규탄한다

【도쿄 3월 31일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일본 간포지방)의 제일본조선청년동맹과 제일본조선학생동맹으로 구성된 항의단인 《영양정령》, 《북제도진북》을 노린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의 핵침략전쟁책동은 규탄한다. 《영양정령》은 남조선에서 3월 30일 일본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피뢰대사관앞에서 항의투쟁을 벌였다. 항의단은 먼저 《미국과 남조선의 핵침략전쟁책동을 견결히 단죄규탄한다!》, 《미국은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을 그만두고 북남관계개선에 성실하게 노력하라!》,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 리행을 나서라!》, 《자주, 민주, 통일》을 외쳤다. 《자주, 민주, 통일》을 외쳤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핵침략전쟁책동을 규탄한다

【도쿄 3월 31일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일본 간포지방)의 제일본조선청년동맹과 제일본조선학생동맹으로 구성된 항의단인 《영양정령》, 《북제도진북》을 노린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의 핵침략전쟁책동은 규탄한다. 《영양정령》은 남조선에서 3월 30일 일본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피뢰대사관앞에서 항의투쟁을 벌였다. 항의단은 먼저 《미국과 남조선의 핵침략전쟁책동을 견결히 단죄규탄한다!》, 《미국은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을 그만두고 북남관계개선에 성실하게 노력하라!》,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 리행을 나서라!》, 《자주, 민주, 통일》을 외쳤다. 《자주, 민주, 통일》을 외쳤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핵침략전쟁책동을 규탄한다

【도쿄 3월 31일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일본 간포지방)의 제일본조선청년동맹과 제일본조선학생동맹으로 구성된 항의단인 《영양정령》, 《북제도진북》을 노린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의 핵침략전쟁책동은 규탄한다. 《영양정령》은 남조선에서 3월 30일 일본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피뢰대사관앞에서 항의투쟁을 벌였다. 항의단은 먼저 《미국과 남조선의 핵침략전쟁책동을 견결히 단죄규탄한다!》, 《미국은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을 그만두고 북남관계개선에 성실하게 노력하라!》,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 리행을 나서라!》, 《자주, 민주, 통일》을 외쳤다. 《자주, 민주, 통일》을 외쳤다.

